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우주의 신비와 불법 II

상위적 수수관계를 통해 유전변천 하는 만유는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반응하고 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면서 무자성 상태에서 평등성과 보편성을 이루어 간다. 에너지가 모여 유형의 창생이 일어난 때는 혼돈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후의 진화에서는 타자와 에너지 수수관계를 통해 가능한 안정과 평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소위 무질서의 증가(엔트로피 증가)에 이고 조화의 증가(엔트로피 감소)에 이고, 또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우주 내 만유의 생주기(無分別智)가 일어나고, 다시 이를 통해 현실상태를 올바르게 관조할 수 있는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가 일어난다. 이것을 <삼대승론>에서 "근본적인 지혜는 객관세계를 지향(嚮)하지 않으므로 눈을 감는 것과 같고, 그 뒤에 얻어지는 지혜는 객관세계를 지향하므로 눈을 뜬 것과 같

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주의 신비는 곧 우주의 근본 섭리인 동시에 불법으로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신비에 접근하려면 먼저 자연의 섭리를 가능한

몸은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지성의 한계에 서 있다는 안타까운 감정 없이 시간과 자연의 창조적 추이의 신비를 명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의 과학은 시공적 제한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투를 조각내듯이 전체적인 이해를 오히려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잘못을 막기 위해 전체를 종합적이며 논리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이상학적 철학이 필요하다고 화이트헤드는 역설했다. 한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



그림 · 문병성

우주적 종교감각 과학탐구 동기

한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범생태적인 전일적 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과 지혜를 수용하는 아량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구밖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우주론적 문명체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열린 마음'을 지니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이해에 한계성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기체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과학은 자연에서 어떠한 개체적인 현상도 발견해 낼 수 없다. 과학은 자연에서 어떠한 목적도 찾아낼 수 없다. 과학은 자연에서 어떠한 창조성도 발견해 내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계기(繼起)의 규칙들을 찾아낼 뿐이다. 과학은 결의 외부만을 검토할 뿐 외부 속의

"자연현상 올바른 이해 위해 합리·신비성 융합돼야" 佛法의 中道사상과 일치

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고 하면서 "우주적 종교감각이 야말로 과학적 탐구의 가장 강력한 동고 동거"라고 생각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 선(善)을 구현하기 위해 인격적인 신(神)의 교리를 던져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주적 종교 감각이란 우주적 신비를 뜻하는 것으로 불교는 이러한 우주적인 종교 감

각을 매우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과학이 없는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의 신비성을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철학자 베르그송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자신이 성취해낸 진보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속 살아 남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라져 버릴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과학적 합리성을 논할 때, 합리성이란 대체로 이미 설정된 매

편 논리적 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틀에 맞지 않으면 비합리적이거나 한다. 따라서 합리성만 요구한다면 인식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구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물리학자 파울리는 "합리성은 신비로움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그는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의 대립을 지양하면서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불법의 중도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주의 신비는 바로 이러한 중도사상을 기초로 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여러 대상을 여실지견(如實知見)으로 받아들여 통합하고 융합하여 <금강경>의 말처럼 '일체개시불법(一切皆是佛法: 일체 만법이 불법이다)'을 이룩하는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가족의 의미 되돌아보게...

영화 '집으로...'

시골에 사는 외할머니와 일곱 살 손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집으로...>가 개봉 후 4주 동안이나 매진 행진을 계속하며 전국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와 '조폭' 영화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어 현대인들이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실제로 극장에서는 손자·손녀, 며느리, 할머니 등 3대가 함께 영화 관람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극장 관계자들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은 늘어난 건다. 4월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모두 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4%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폭력발생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와 음주 후 폭행이 2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처님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이 가족<집>아함경"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더라도 가정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이해할 때 비로소 가정은 안락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자비스러운 부모가 오래 길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더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수미산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大海)와 같다.

<심지관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신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마지 Rice offering to the Buddha

Chanting and offering rice, thus remembering the buddha's custom of eating once a day, take place at 10:30 a.m. After the ceremony, the monks have lunch. Rice offering to the Buddha is the main meal of the day - for the buddha did not eat after noon. They chant before the meal and remind themselves to take food to sustain the body, not from greed or from a desire to beautify themselves.

예불과 공양은 하루에 한 번만 공양했던 부처님의 관습을 상기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 10시에 이루어진다. 의식이 끝나면 스님들은 점심 공양을 한다. 사시 마지는 부처님이 저녁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았기에 하루 중 유일한 공양이다. 스님들은 식사 전에 예불을 한다. 이는 음식을 탐욕이나 일신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다.

After lunch and a short free period, all return to their respective activities until supper-time at about 5 p.m.

점심 공양 후 오후 5시 저녁식사까지는 각각의 활동 영역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10

마음에 통달하라

나타나는 소리가 모든 마음이며, 코앞에 출현하는 냄새가 모두 마음이고, 혀 위에 느껴지는 맛이 모두 마음이며, 손에 잡혀지는 촉감이 모두 마음이고, 의식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온갖 경계 모두가 마음이며, 아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에는 어떻게 통하는가? 다음은 어떠한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양에 의지하거나 모양을 통해서 마음은 통할 수가 없다. 오직 마음 홀로 밝다고 말하지만, 홀로 밝은 것이 어떤 모양은 아니다. 오히려 정해

타난다. 즉 볼 줄 아는 것이 마음이고, 들을 줄 아는 것이 마음이고, 냄새 맡을 줄 아는 것이 마음이고, 맛볼 줄 아는 것이 마음이고, 의식할 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름

기 위해서는 막힘없이 뜨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을 허공과 같다고도 한다. 마음은 허공처럼 크기와 방향이 없어서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에 막힘없이 통하여 그 경계와 더불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는 서로 돌이 아닌 하나이며, 한 순간 하나의 경계에서도 마음은 끊어질 수가 없다.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계와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경계라는 모양이 곧 마음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통하는 일은 경계 위에서 발생하지만, 마음이 경계의 형태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를 모양으로 파악하는 정식에 구속되지만 않는다면, 마음은 바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막힘없이 통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경계는 나타나지 못한다. 바로 지금 쉬고자 막막이 뛰면서 글을 읽는 여기에서 마음에 통하면 경계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어떤 경계 닦쳐도 구속 없어져

모르는 것도 마음이며, 알려지는 것도 마음이고, 알려지지 않는 것도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통하면 모든 경계에 다 통달하게 되어 막힘이 없지만, 마음에 통하지 못하면 모든 경계에서 어둡고 가로막히게 된다.

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밝을 수가 있어서, 어떤 경계가 다가와도 모조리 밝혀서 조금의 의심도 없다. 홀로 밝은 마음의 빛이 밝혀주지 않으면 어떤 경계도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경계는 마음의 힘에 의하여 나

에 해당하는 '정해진 그 무엇'은 없다. '정해진 그 무엇'을 두고 마음이라고 일컫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의식적으로 헤아려 판단하거나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안다고 보다는 마음에 통한다는 말이 보다 적절하다. 통하

간(肝)이

간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덕왕사 지장대불 조성불사 권선문



신승은 부처님전에 귀의한 후로 항상 지장보살님전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서 기도중에 지장도량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고 발원하여 「경북 안동시 녹전면」 일출산 자락에 「덕왕사」를 창건하여 지장대불을 조성하여 모시고 일체 중생에게 다급생에 지는 죄업을 소멸하고 육도윤회 모든 고통을 면하여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마장장애 없도록 유주무주고혼영가와 상세 선방 부모영가를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기도발원 하였고 이생에 지장대불 조성불사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에 무량보덕을 성취하옵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또한 덕왕사 대각 불사인연으로 성불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 법회일시 > 매달 초하루 ~ 초 3일까지 신중기도 > 보름 인등법회 > 18일 지장제일 영가천도 법회
- 덕왕사에서 평생동안 영가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동안 모든 조상영가를 영단에 모시고 매달 지장제일마다 천도제를 하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께는 천일동안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

※ 온라인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우체국 700435-0029797 예금주: 유재하

연락처 :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 번지

일출산 덕왕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 011-522-1237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 (구토), (노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엄하기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졸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반백, 매실, 마위 등)

- 현대대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